

여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촉진·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민·관 합동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5일 서시장을 비롯한 일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독려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인 만큼 시민들의 기한 내 사용을 안내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 기획경제국과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등 55여 명이 참여해 서시장과 주변시장 상인 및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홍보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가격표 시제 준수,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등 물가안정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여수시는 지원금 사용이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사용 기한 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지역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특히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만큼 기한 내 사용 안내에 중점을 두고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 기획경제국과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등 55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서시장과 주변시장을 돌며 시민과 상인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사

용 방법과 기한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가격표시제 준수도 함께 홍보했다.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도 병행해 진행됐다. 여수시는 이번 활동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 참여를 당부했다. 여수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한상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촉진·물가안정 캠페인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개최

순천시는 지난 25일 연향동 소재 호남호국기념관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6·25참전유공자회 순천시지회(회장 정현종)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 장수사진 전달식이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 봉사 동아리 ‘뽕포도’의 회장이자 현 공군교육사령부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인 김중곤 관장이 지난 5월 27일 순천시 고령의 참전용사 80명의 장수사진을 촬영해 이날 전달했다.

촬영부터 보정, 인쇄, 액자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진 전시회 수익금과 공모전 상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해 충당하고 있다.

/노한상 기자

광양시, 2026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대상’ 수상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정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광양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1억 6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정적인 지방세정 운영 성과를 이어갔다.

올해 대상 수상의 핵심 요인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열악한 세수 환경을 적극행정으로 돌파한 점이다. 전반적인 징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시는 ▲누락·탈루 세원 발굴 ▲효

율적인 체납관리 ▲과감한 정리보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감축에 힘썼다.

아울러 ▲지방세 카카오톡 채널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지방세 제증명 원스톱 처리 등 시민이 체감하는 납세 서비스 향상 시책을 도입·개선하고, 실무 팀장이 지역방송에 출연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 주요 정성평가 부문에서 단 1점의 감점도 없이 전역 만점을 획득했다. 조상진 세정과장은 “이번 대상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와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시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한상 기자

곡성군, 정보화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 교육 통해 농업 경영 혁신 도모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 정보화농업인연구회원 23명을 대상으로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6 농업기술박람회를 찾아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정보화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업 경영 혁신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먼저 농업기술박람회장에서 열린 스마트경진대회 혁신사례 교육에 참여해 우수 농업인의 스마트 영농 운영 사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영 전략을 공유받았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기반 관리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스마트 콘텐츠 전시관과 라이브커머스 경진대회 현장을 참관하며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온라인 판매 전략을 살펴봤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사례는 소비자와의 소통 확대와 새로운 판로 개척 방안을 제시해 참여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R&D) 성과 전시관을 둘러보며 첨단 농업기술 적용 사례와 미래 농업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마트농업 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심선섭 기자

구례군 반달곰씨름단, 전국씨름대회 국화급·단체전 우승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전국대회에서 국화급 우승과 준우승, 단체전 우승까지 휩쓸며 여자씨름 강호의 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충북 괴산군에서 열린 ‘제3회 괴산유기농배장사씨름대회’에서 국화급 장사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국화급 결승전에서는 구례군청 소속 이세미 선수와 엄하진 선수가 맞붙으며 팀 내 맞대결이 성사됐다. 이세미 선수는 첫 판에서 연장 점전 끝에 판정승을 거둔 데 이어, 두 번째 판에서는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키며 2대0 승리를 거두고 장사에 올랐다.

엄하진 선수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구례군청이 국화급 1·2위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냈다. /심선섭 기자

단체전에서도 구례군청의 기세는 이어졌다. 결승에서 거제시청과 맞붙은 구례군청은 선채림 선수가 매화급에서 이연우 선수를 꺾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국화급 엄하진 선수가 권수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점수차를 2대0으로 벌렸다. 무궁화급 경기에서 한 점을 내줬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김시우 선수가 승리를 따내며 최종 3대1로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단체전 우승은 박공선 감독 취임 이후 처음 거둔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성과는 박공선 감독 취임 이후 첫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며 팀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심선섭 기자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전라남도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영광수협 중매인 18년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명품굴비

축가네 경성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